

오피니언 리더

방충헌

광주동명교회 원로장로



요한 계시록에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나온다.

그중에서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일어나는 일들을 묵상해보려고 한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 하더라.”(계16:10-11).

그 세상나라가 어두워지는 일이 무엇으로 가능한 일일까?

정상적인 대낮에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은 달이 지구와 태양사이에 있어서 일식을 일으킬 때 잘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일식에서는 몇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 되어 빛은 지구를 다시 비추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름이나 아픈 것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일식은 이 성경 본문해석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어두움은 일식과는 상관없는 지구에 나타나는 다른 상태를 추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화산의 폭발이다.

화산의 깊은 지포 밑에 쌓이고 쌓인 마그마가 지표로 파고나고 용암이 지표 밖으로 폭발하면서 터져 흘러나오는 것이 화산활동이다.

화산이 폭발하면 큰 화산은 수 백 킬로미터의 상공까지 온갖 물질들을 분출하여 하늘을 가리 우고 빛을 차단하며 그 물질들이 땅으로 내려오기까지 계속적으로 지구로 오는 태양 빛을 가로막아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산이 터진 장소는 마그마가 흘러나와 가옥을 덮치고, 도로를 메우며 산을 넘어 용암은 흐르고 이 용암에 접촉되면 엄청난 화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생물들이 죽게 되고, 이재민이 발생되어 이 지역은 난리가 날 것이다.

규모가 큰 화산이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빛을 가리어 지구는 어둡게 되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식물들의 발육도 영향을 받아 흉년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화산의 폭발로 몇 년 지구촌에 흉년이 들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지구촌의 특정한 지역 곧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있는 곳에서 화산이 터질

것이다.

진로의 대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인 이 지구를 사람들이 관리를 위하여 오염시켜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경고하시는 것이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겔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계16:12-16).

지금 유브라테강은 말라있다. 강의 상부 발원지부근에 댐들을 막아 하류로 흐르는 물이 적어서 테헤란시가 먹을 물을 걱정하는 상황

이다.

전쟁준비는 되어가고 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고 하루 한 시간에 인류의 1/3이 일시에 죽는 전쟁이 아마겔돈 전쟁이다.

그러면 아마겔돈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화산의 대 폭발이 지구상에서 터지고 이 재앙 이후에 여섯째 천사의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겔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아마겔돈 전쟁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에스겔 7장 9절에 7년간 전쟁이 계속된다고 예언되어 있다.

아마겔돈 전쟁이 터진 후 7년이 되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렛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계16:17-20).

천지개벽이다. 이것은 첫째 나팔부터 내재 나팔까지 같은 사건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리 성도들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난 후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그 때인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설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과거 수십 년동안 당뇨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설탕의 과잉섭취가 심장병, 당뇨병, 비만 등 대사증후군 질병은 물론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문제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에, 개인이 섭취하는 하루 당류 총량과 첨가당에 대한 상한 섭취량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곤 한다 (WHO기준 성인 하루 25g 이하).

그러나 어떤 전문가 그룹에서는 설탕같은 당류가 이러한 대사증후군 질병들의 독립적인 변수의 위험요인은 아니기에 그런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비만의 경우 매우 복잡한 인 문제로 인한 총합체이기에, 단순히 어떤 식품의 성분이 문제라든지 또는 당류가 많이 함유된 식사자체가 비만발생 원인이라고 결론내리기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설탕 등 당류의 과다섭취가 비만과 함께 위와 같은 질병 발생의 개연성을 매우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설탕같은 당류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설탕자체를 배제해야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 혐오해야 할 설탕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볼 일이다. 설탕자체를 죄악으로까지 표현하여 ‘죄악세(sin tax)’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 국가까지 있는데, 설탕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국내에서도 설탕(당류)포함 음료에 대해 소위 설탕세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현대 식생활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게 되는 설탕의 과다섭취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설탕 그 자체가 나쁘거나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설탕이 문제가 아니고 설탕을 이용하는 인간의 식생활 행동양식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설탕이 코카인과 같은 마약이 주는 정도의 만족감과 갈망을 제공하기에 상당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동물실험 결과도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복잡하고 바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은, 설탕 등의 당류

가 풍부한 식품섭취를 쉽게 통제하기 어려워라 본다.

이에 반해 설탕이 질환을 가져와 건강에 문제를 분명하게 미치는 것은 참치이다. 이들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명확하다. 당류의 대표적인 설탕이 치아에 머물면, 입안의 충치유발 균(S. mutans) 박테리아에 의해 설탕이 분해되면서 산이 생성되어 치아를 부식시켜 충치가 생긴다.

또한 이 박테리아는 당류를 사용해서 플라그를 만든다. 카라멜, 젤 등과 같이 당성분이 많고 끈적끈적한 식품을 충치 유발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치아에 붙어서 충치의 위험성을 매우 높인다. 박테리아가 설탕으로부터 산을 생성하여 치아를 부식시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끈적끈적한 식품들이 치아에서 계속 당류를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충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당류 개발은 현대사회에서 또 하나의 큰 연구주제이다. 단맛을 내면서도 충치를 가져오지 않는 자일리톨이 현대인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이기도 하다 (설탕같은 6탄당은 충치를 만들지만 자일리톨은 5탄당이기에 충치를 만들지 않는다).



이원재 교수

- 서울대와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과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선교칼럼

96



장찬익 선교사
이탈레산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합동목사
저서, 이슬람선교의 돌파구

▶ 지난호에 이어서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하면 대출에 대한 이자가 없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공장의 물건을

대량생산해서 상업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장이 많은 물건을 공급할지라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사지를 못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망하고 있고 망하니 직장을 잃은 국민들은 더 가난해 저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월이 23년 동안 반복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오히려 금리를 더 떨어뜨려서 대출을 하니 그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절대물가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결혼해서 사시는 지 궁금합니다. 반면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은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썩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엄청 세속적이어서 이자율이 정말로 썩습니다. 이렇게 종교와 현실을 따로 따로 구분하여 사는 이슬람나라들도 있습니다.

왜 튀르키예의 경제가 붕괴되고 있을까요?-2

되다가 이제 붕괴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슬람 근본주의 경제관이 낳고 있는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경제관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그에 맞게 이자도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만큼 이자도 올려서 물가의 절대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관리를 유지할

들의 경제는 계속 침체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인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 남편은 은행이 이자를 받고 또 사람들의 적금에 이자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여성은 그것이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해서 부부싸움과 가치관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지금의 튀르키예의 경제붕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디 하루 속히 이슬람근본주의가 물러가고 건강한 자본주의가 수립되기를 기도합니다.

튀르키예에 이슬람 근본주의 경제관이 무너지고 자유시장 경제관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튀르키예 국민들의 생각도 새롭게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gccc.or.kr



합동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
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
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목
사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
학은 창교도 개혁 신학의 요
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계를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도
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망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
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
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 학 부 (졸업후 전도사 사역)	신 학 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관리는 본교인 서울 남한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 술 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 접수: 수시 접수 (062-266-0153)
3.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 신학부: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신학연구원: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제 수업)
- ▶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 (<http://gsgccc.or.kr>)
- ▶ 주야간반: 매주 월/화 (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주 말 반: 매주 토요일
-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부부학성특혜
- ▶ 최고의 교수진 / 실용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 교회개혁, 설립인원,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 한교연, 한가총, 한장연, 세기총 가입 교단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 총회신학. 연구원장: 임강원 목사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